

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 : 이병진·임미애·송옥주  
윤후덕·권칠승·한민수  
이상식·민병덕·윤준병  
조 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.

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,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.

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.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.

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,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

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소지”를 “소지(시청가능한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 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<u>소지</u> ·시 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소지(시</u> <u>청가능한 「인터넷주소자원</u> <u>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</u> <u>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</u> <u>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⑥·⑦ (생   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